“한국전쟁 당시 통도사 병원에 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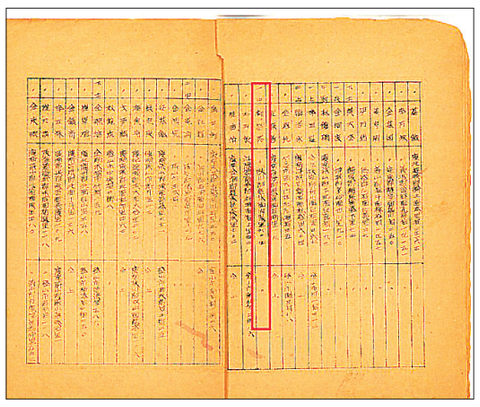
통도사 정양원 관련 추가증언 나와 눈길

유창수 어르신 입원 당시 증언 “스님은없고 중상 환자들 많아” 통도사, 용화전 호국미륵불 봉안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 관계자들이 31육군병원 통도사 정양원에 입원했던 유창수 어르신의 증언을 청취하고 있다.



유창수 어르신이 육군 839부대 제1대대서 받은 제9차 상이군인명예제대장명부.

“영덕 전투에서 다리에 관통상과 팔에 파편상 그리고 귀를 다쳐 1951년 여름경 31육군병원 통도사(정양원)에 입원했습니다. 통도사에 갔더니 스님들은 다른 곳에 옮겨놓고 환자들만 있었습니다. 통도사 정양원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중상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31육군병원 정양원)에 입원한 유창수(94)어르신이 ‘31육군병원 정양원’이 실재했음을 증언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6월 8일 유창수 어르신의 증언을 청취한 31육군병원 증언 자료를 공개했다.

유창수 어르신은 6·25 한국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 입대했다. 영덕전투에서 부상당해 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정양원)에 입원해 3개월 정도 정양을 마친 후 전투 불능상태로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839부대에서 전역했다. 면담에는 통도사 기획국장 지범 스님, 기획과장 혜덕 스님, 총무과장 정대 스님이 참여했다.

유창수 어르신은 “내가 거처한 방도 알고 있다. 내가 거처한 방에서 대웅전까지 100미터도 안됐다”며 “한방에 보통 4~5명씩 들어갔다. 당시에 공비가 통도사에 많이 내려와서 보초들이 항상 서 있었다”고 증언했다.

유창수 어르신의 조카 박동철 씨는 “10년 전 통도사에 모시고 방문했을 때 대광명전 법당에 들어가 한참 후 법당을 나와서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갔다’ 고 많이 우셨다”고 증언을 덧붙였다.

통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에 입원해 사망한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 호국사찰로 역할을 다한 불교의 위상을 널리 알린다는 의지이다.

이를 위해 통도사는 6월 1일 용화전에 백옥 미륵부처님을 봉안했다. 〈미륵하생경〉에 나오는 56억 7000만년 뒤 용화세계가 실현되고 미륵 부처님이 강림한다는 의미를 담아 1000만년을 한분의 미륵 부처님으로 상징화해 567미륵불을 모셨다. 통도사가 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됐다는 최초 증언이 용화전 불상 속 연기문을 통해서 확인 된 바 있어 의미가 크다. 당대 구하 스님이 쓴 연기문으로 국군 상이용사 3000여명이 입사 후 퇴거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통도사 기획국장 지범 스님은 “6월 8일 방장 스님께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 정양원에 입원한 군인 가족들이 방문했었다. 학도병으로 입대해 전사한 군인의 가족이었다.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호국정신을 기려야 한다”며 “통도사는 신속하게 호국 현충시설로 인정받아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재 등을 봉행해 순국선열과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보훈처 보훈선양팀은 “통도사 현충시설 지정을 위해 6월 4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로 심의 자료를 보냈다”며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회의 후 결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 ‘우리절대법화원’ 개원하는 대풍범각 스님

6월19일 오전10시 점안 및 개원 법회

“도심속 문화 힐링 도량으로 키우겠다”



가요교실, 다도, 꽃꽂이 등 문화프로그램 무료 개설해

“불자들의 힐링 공간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전법도량 등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찰로 운영할 것입니다. 불법만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요즘같이 코로나 정국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너무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힐링 콘텐츠를 개발해 편안히 와서 즐기고 힐링하며 쉬고 싶은 도심 속 힐링 문화공간으로 도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 부산시 남구 용호동 도심상가에 ‘우리절대법화원’ 포교당을 개원하는 대풍범각 스님(밀양 사천왕사 주지 · 사진).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찰대본산 범어사서 전(前) 대각회 이사장 흥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동국대 일반대학원 석사를 취득한 후, 10년 동안 무문관 수행을 했다. 현재는 견불사, 실상선원, 사천왕사 창건주 겸 회주이며 붓다야나명상대학 학장, (사)행복한사회 이사장, 대한불교자비공덕회 대표, 부산 대각정사 및 공덕원 주지를 맡아 불법 홍포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대풍범각 스님은 마음법을 쉽게 설명한 〈진심법문〉 강의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번에 개원하는 ‘우리절대법화원’은 1993년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의 수필집 저자로 출간 당시 150만부 이상 팔아치우며 큰 인기를 얻었던 석용산 스님이 도심 포교를 하던 곳이다. 대풍 스님은 “당시만 해도 ‘공덕원’이란 이름으로 석용산 스님이 많은 불자들에게 전법 포교를 한 곳입니다. 하지만 스님이 열반하신 이후에는 사세가 약화되고, 근간에는 근근이 운영되었는데 때마침 지난해 법문 하러 가면서 첫 인연이 됐지요. 법문을 하면서 30년 이상 운영된 유서 깊은 도량인 이곳서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석용산 스님의 원력과 유지를 받들어 도심 포교를 해야 겠다는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대풍 범각 스님은 산속과 도심을 가리지 않고 원력과 뚝심으로 절과 포교당을 10여곳 개원한 포교 레전드이다.

법화산서 무문관 수행을 하고 나온 직후 스님은 부산 장전동 온천장 인근에 ‘법화원’을 첫 개원한 이후 지리산 경남 함양 ‘견불사’와 선방인 ‘실상선원’, 2003년에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 부산 해운대에 ‘법화불교대학’과 ‘명상센터’ 및 대각정사, 밀양 사천왕사를 잇달아 열고 진심법문 포교에 진력해 왔다. 정확히 꼽으면 이번 부산 ‘우리절대법화원’은 스님이 창건한 10번째 도량인 셈이다.

“도심 포교를 흔히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은 운영상 손익을 따져서 그런 겁니다. 인연따라 없으면 없는대로 부족한 상황이라도 불자들에게 전법과 포교에만 열과 성을 모두 쏟는다면 경제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지언정 포교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사찰을 위계에 의해 경직되게 운영하지 말고, 휴게실화 놀이터화 시켜 언제든 편안히 찾아와 상담 받고 쉼터 같은 열린 공간을 만든다면 도심 포교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5층 건물에 자리한 ‘우리절대법화원’은 총 250평 규모로 법당은 150평 정도다. 200~300명 정도가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마지막으로 대풍 범각 스님은 “9월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백고좌 법회를 열어 신도들에게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찬불가 및 가요 배우기교실, 국악춤과 현대무용, 다도, 꽃꽂이, 서예 사경, 건강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20대~70대까지 누구나 와서 무료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버 노인 불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및 화병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절대법화원’은 6월 19일 오전 10시 흥교 스님(창원 성주사 조실)을 증명 법사로 모시고 ‘부처님 점안식 및 개원 법회’를 봉행한다. (051)892-5000 부산=김주일 기자

선운사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2021년도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 ‘도솔산 선운사 산중 기행’을 진행했다.

5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선운사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은 대웅전(보물 290호), 만세루(보물 2565호),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279호), 영산전(시도유형문화재 277호), 석씨원류(시도유형문화재 제14호)등 천년고찰 선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하여 진행됐다. 특히 선운사 만세루에서는 작은 음악회 ‘달빛아래 도솔천을 거닐다’ 공연이 열렸다. 또한 인경 및 탁본 체험, 일주문에서 도솔천 산책로를 따라 걷는 ‘달빛 기행’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승가교육 활성화에 역주할 것”

[인터뷰] 대한불교선재종 총무원장 지운 스님



습의의식과 승가교육 실시 2주간 전문 프로그램 제공 광주미륵사 선재원서 진행

대한불교선재종(총무원장 지운)이 종단의 후학을 양성하고, 기존 승가교육과 습의를 배우지 못한 스님들을 위한 교육을 개설한다.

총무원장 지운 스님(경북 영천 용화사 주지 · 사진)은 “주위에 보면 무늬만 스님들이 너무 많다. 삭발염의는 하였지만 습의도 모르고, 은사도 없이 스스로 출가한 분들이 많아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저희 종단에 인연을 맺어 체계적 교육을 시키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선재종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재동자의 구법정신을 본받아 선지식을 찾아 자기를 점검받고, 수행정진 하는 종단이 되자’라는 취지로 교육을 진행한다. 2016년 창종한 대한불교선재종은 전문 교육공간과 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기교육은 광주 무등산 미륵사 선재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을 이끌 총무원장 지운 스님은 40년 전 순천 송광사에서 출가해 수행생활을 이어왔다. 스님은 승가교육없이 출가자가 된 스님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육과 예법에 대해 늘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스님은 “저작거리에 있는 무수한 부처님을 친견해야 한다. 폐지를 줍고 다니는 노인 부처님 등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분이 부처님이다”며 “그 사람들의 고뇌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과 같은 동사섭(同事攝)의 마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수행자”라고 강조했다.

선재종은 총본산인 무등산 미륵사와 부설로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 수자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포교 구심점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출가 이후 화두참구를 하고 있는 지운 스님은 최근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화두로 수행하고 있다. 백양사 서옹 스님이 즐겨 쓰던 ‘수처작주’를 생활 기조로 정진하고 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하거나 뒷꽁무니만 쫓는 것은 남들 흉내만 내는 것이니, 항상 있는 곳에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참 나를 찾는 행복이 가득한 절

불자교육 시민선방



법화신행도량
우리절대법화원
BTN 불교TV 진심법문 방송 도량
상담문의 : 051) 892-500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32번지 용성빌딩 5층 (구 부산은행)



불자여러분!
한국불교 대표방송인 BTN불교TV에서 ‘진심법문’을 인기리에 강설한 대풍범각스님께서 그동안 닦아온 수행경험과 법력으로 불자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특화된 불교 신행 전문포교원 “우리절 대법화원”을 개원합니다.

첫째, “우리절 대법화원”에서는 주지 대풍범각 스님의 진심법문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스님들을 초청설법을 통하여 불자여러분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절 대법화원”은 불교의 진리와 신행을 배우고 익히는 포교원일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익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도, 서예, 꽃꽂이, 불화그리기, 노래, 선 체조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열어 불자님들의 불성과 인성계발은 물론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생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이 가득한 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셋째, 주지 대풍범각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방법’과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오랜 신행 속에서도 깨달음이 열리지 않고 삶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세요.
‘우리절대법화원’의 주지 대풍범각 스님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신다면 분명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시게 될 것 입니다.

불자여러분! “우리절 대법화원의 개원법회” 소중한 여러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참석하는 모든 불자님들께 귀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주지 : 대풍 범각 스님

대풍 범각스님의 진심법문
YouTube 대풍범각TV



[주지 대풍범각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출가
● 흥교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 견불사·실상선원·사천왕사·대각정사 창건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미국코웬대학교 명예 종교학박사
● 현)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이사장
● 현)붓다야나명상대학 학장
● 현)대한불교자비공덕회 대표
● BTN불교TV "진심법문"강의

함께 하실 가족을 모십니다.
● 공 양 주:1명
● 종무직원:1명(유경험자 우대)
문의 : 051)892-5000

정정 현대불교신문 제1340호, 제1342호, 제1343호 5면에 게재된 ‘부처님점안 및 개원법회’ 광고내용중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대법화원 대법당을 ‘우리절대법화원 대법당’으로 정정합니다.
사찰명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대법화원을 ‘우리절대법화원’으로 정정합니다